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 석 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식민지시기
신분 문제와 교과서 서술
-형평 운동을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홍 성 진

식민지시기
신분 문제와 교과서 서술
-형평 운동을 중심으로-

홍 석 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홍 성 진

인 준 서

홍성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0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지금까지 세습되어오던 신분제가 법과 제도적으로는 폐지되었다. 세습신분제 폐지 문제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봉건적 신분제의 해체는 더 평등한 사회, 근대 국민국가, 국민적 통합 및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사회 관념적인 신분 차별은 계속되었다. 공식적인 신분제 폐지가 있었음에도 차별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충분히 주목될 가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신분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난 백정의 사회적 차별 반대 운동인 형평 운동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신분제의 공식적인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는 신분 문제와 1923년에 결성된 조선형평사 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보았다. 교과서는 역사과 2010 부분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근대 신분제 잔존 문제와 이 때문에 발생한 형평 운동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목 차

논문개요

I . 머리말	1
II . 백정에 대한 차별과 형평 운동	5
1. 신분제와 백정 문제	5
1) 갑오개혁 이후의 신분 문제	5
2) 백정 차별 문제	8
2. 형평 운동의 전개	9
1) 형평사의 조직과 활동	9
2) 형평 운동의 해소와 변질	15
III . 형평 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 분석과 문제점	18
1. 신분 문제와 백정 차별 문제	18
2. 형평 운동에 대한 서술 분석	25
IV . 교육방안 연구	32
V . 맺음말	38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6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목록	3
<표2> 형평 운동 학습 수업지도안	32
<표3> 식민지시기의 신분 문제 탐구활동	34
<표4> 식민지시기 형평 운동에 대한 탐구활동	36

I . 머리말

갑오개혁으로 법과 제도적으로는 지금까지 세습되어오던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분적 차별은 계속 존재했다. 천민 출신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백정이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 백정들은 차별에 대하여 일제 식민지시기에 형평 운동을 전개했다. 신분제 폐지는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근대 사회로의 이행에서 봉건적 신분제의 해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분제 폐지는 더 평등한 사회,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문제이다. 나아가 국민국가의 수립과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신분제의 폐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세습신분제의 공식적인 폐지 이후에도 신분에 따른 차별은 지속되었다. 갑오개혁이라는 한 번의 제도폐지로 모든 것이 쉽게 다 해결될 수는 없었다. 공식적인 신분제 폐지가 있었음에도 차별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충분히 주목될 가치가 있다.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신분 차별 문제가 왜 생겨났고,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별 문제가 어떠한 상황을 불러 일으켰는지 충분히 교과서 서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신분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난 백정의 사회적 차별 반대 운동인 형평 운동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아야 한다.

1920년대 일어난 형평 운동에 대해서는 고숙화와 김중섭이 선구적인 학술적 업적을 남겼다. 고숙화는 1차 사료에 근거해서 형평 운동 전반에 관해 정리했다. 형평사가 창립에서 해소되기까지 신문 기사를 통하여 형평 운동을 살펴보았으며 신분해방 및 사회운동 전개과정 속에서 형평 운동의 이념,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 및 관련성, 노선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¹⁾ 김

1) 고숙화, 「日帝下 衡平社에 關한 一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衡平社에 대

중섭 또한 형평 운동 전반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특히 지역 공동체적 입장에서 형평 운동을 분석하며 운동 지도세력의 성격과 변화를 심층 규명하였다. 일본 수평사와의 연관성도 연구했다.²⁾ 1993년에는 형평 운동 7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논문집이 발간되면서 형평 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최근에는 형평 운동의 지역적 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김재영이 영호남의 지사, 분사의 활동에 대해 연구했으며, 전홍우는 강원지역의 형평 운동을 다루었고, 박세경은 신분해방운동으로서의 형평사와 수평사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³⁾ 형평 운동은 전반적 사실정리뿐만 아니라 지역적 양상, 타 운동단체와의 연대, 일본 수평사와의 연대, 노선 변화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 지면의 제약 문제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식민지시기 신분 문제와 그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더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조선의 신분제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많은 연구가 있다.⁴⁾ 그러나 식민지시기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교육

한 연구 -創立背景 草創期(1923~1925) 衡平社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38, 1984; 「日帝下 衡平社 研究 -1926년 이후의 衡平社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0, 한국사학회, 1989; 「日帝下 衡平社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형평운동」 『한국사』 49(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1;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2(형평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2) 김중섭, 「1920년대 형평운동의 형성과정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5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일제 침략기 형평 운동의 지도 세력 :그 성격과 변화」 『동방학지』 7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2; 『한국사회연구』 3(형평 운동 연구), 민영사, 1994; 「진주문화를 찾아서」 3(형평운동), 지식산업사, 2001; 「한국 형평사와 일본 수평사의 인권 증진 협력 활동 연구」 『사회와 역사』 84, 한국사회사학회, 2009; 「사회운동의 시대 :일제 침략기 지역 공동체의 역동성」 『현상과 인식』 3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 3) 김재영, 「일제 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박세경, 「1920년대 朝鮮과 日本의 身分解放運動 -衡平社와 水平社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3, 한국일본근대학회, 2009; 전홍우, 「일제강점기 강원지역 형평운동」 『인문과학연구』 38,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4) 고영조, 「朝鮮後期 奴婢身分制의 變動에 관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전형택, 「朝鮮前期 身分制 研究動向과 [國史] 교과서의 서술 :4차·5차·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한상권,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역사 인식 및 서술 내용 :사회의 「신분제도」, 「향촌사회」, 「농민항쟁」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없다. 즉 조선의 신분변동에 대하여 다른 연구는 많지만 식민지시기 신분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시기 신분 문제와 형평 운동을 역사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분석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역사과 2010 부분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이다. 6종 교과서의 저자 및 서지사항은 <표1>과 같다.

<표1> 6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목록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약칭
한철호, 김기승, 김인기, 조왕호, 권나리, 박지숙	미래엔	2011	미래엔
최준채, 서각수, 윤영호, 안정희, 남궁원	법문사		법문사
도면희, 이건홍, 김향미, 김동린, 조한준, 최태성, 이희명	비상교육		비상
이인석, 정행렬, 박중현, 박범희, 김쌍규, 임행만	삼화출판사		삼화
정재정, 장중근, 오창훈, 박찬석, 김태진	지학사		지학사
주진오, 박찬승, 이신철, 나인호, 임성모, 경규철, 송옥란, 오정현	천재교육		천재교육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세계사와 접목되어 있다 보니 한국사의 비

연구」7,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양모진, 「조선시대 신분제에 관한 국사 교과서의 서술변화 :3~7차 국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이정이, 「제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사회사 단원 분석 -신분제의 서술내용 및 자료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강승호,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사회사 서술과 사회사 수업사례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10, 역사와 교육학회, 2010.

중이 작으며 그것도 전근대사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현대사 위주의 서술을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갑오개혁 이후에도 남아 있는 신분 문제와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백정의 형평 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최근 학계의 축적된 연구에 비추어 분석해보겠다.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신분 문제와 관련하여 형평 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시기 신분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탐색해 보겠다.

II. 백정에 대한 차별과 형평 운동

1. 신분제와 백정 문제

1) 갑오개혁 이후의 신분 문제

신분제는 전근대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다. 따라서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세습신분제 폐지이다. 신분제 폐지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 시대의 신분제는 원래 양천제였지만 양반신분이 15~16세기에 지배신분으로 정착되면서 양반·중인·상민·천민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갑오개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⁵⁾ 1801년 공노비 해방, 1886년 사노비 세습폐지에 이어 1894년 군국기무처가 신분제를 폐지하는 법령을 의결하여 공포하였다.⁶⁾ 이로 인해 양반의 특권이 사라지고 천민의 차별이 철폐되어 노비·백정 등이 신분차별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되었다.⁷⁾

그러나 오랫동안 존속되어온 신분 사이의 사회적 차별과 신분적 위계질서에 대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다. 양반층은 대다수가 신분제 폐지에 반대했다.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했으며, 상민과 함께 평등하게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학 농민운동 등으로 표출된 신분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너무 강해서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했다.⁸⁾ 신분제 폐지를 선언했지만 곧 개화파 관료들은 노비의 전면적이고 즉

5) 지승중,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한국사』 44(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000, 319쪽.

6) 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 2(개신교 입국에서 을미사변까지), 인물과 사상사, 2007, 200쪽.

7) 조성윤, 「상민·천민 층의 성장」 『한국사』 44(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000, 345쪽.

8) 김옥훈,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02, 64쪽.

각적인 해방조치를 유보하고 점진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했다.⁹⁾ 이에 신분제 해체로 인한 지배층의 기득권 붕괴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아울러 위정척사와 유인석 등은 유교논리에 입각한 신분제 옹호 논리를 주장하기도 했다.¹⁰⁾ 1899년 독립신문은 반상을 초월한 인재등용이 신분차별 의식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10년 당시 양반·유생의 태도에 대한 경찰의 평가도 반상제의 사회적 기능이 멈추지 않았다고 보았다.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생활면에서 관습적으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¹¹⁾

서얼·향리·의관 등으로 구성된 중인은 신분제 폐지를 통해 이득을 보았다. 서얼은 양반가의 첩의 자식들이었다. 이들은 제사·가산상속에서 차별 받았으며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응시 자격이 없었으며 관직에 진출하더라도 중요 직책으로 갈 수 없었다.¹²⁾ 그러나 갑오개혁으로 인한 세습신분제 폐지 이후에는 더 많이 관직에 진출했다. 향리는 양반관료제 사회 속에서 그 밑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보조적 기능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방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업적 농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지주로 성장했다.¹³⁾ 역관은 조선왕조에서 유교사상에 입각한 무본억말(務本抑末)정책으로 천시 받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 양반층의 배타적 태도로 인해 역관의 임무는 부차적 임무로 저평가 받았다. 그러므로 역관은 무관직 진출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려 했다. 무과를 거쳐 지방의 수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이후에는 공·사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9) 강준만, 앞의 책, 2007, 200쪽.

10) 최혜실, 「개화기 신분제 붕괴와 남녀평등, 자유연애 결혼의 관련 양상」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114쪽.

11) 지승중, 앞의 논문, 2000, 332쪽.

12) 지승중, 「朝鮮前期의 庶孽身分」 『사회와역사』 27, 한국사회사학회, 1991, 139~141쪽.

13) 김필동, 「중간신분층의 부상」 『한국사』 44(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000, 341~343쪽.

성장했다.¹⁴⁾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자 중인들은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산을 더욱 늘려나갔다. 중인들은 글과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신분제 폐지 이후 빠르게 사회적으로 성장해갔다.

일반 농민들 중에는 근대 학문 수용과 신교육을 받은 자들 일부가 중앙관리로 진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지 못했다. 여전히 권력의 상부에는 기존 권력층인 양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양반들도 과거제 대신 근대 학문을 수용하여 신교육을 받고 중앙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계속 유지했다.¹⁵⁾

갑오개혁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노비제의 폐지이다. 노비제 폐지는 신분의 구별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갑오개혁의 주요 조치를 열거한 의정 존안에 보면 노비제 폐지와 천민해방의 원칙만 표명했지 원칙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다.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는 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를 형식적으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원칙만 있고 상세한 시행방침이 없었다. 노비의 경우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해도 곧바로 주인과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없었고,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에 대부분 예전과 비슷하게 살았다.¹⁶⁾

한편 제도적인 차원에서 세습신분제 청산이 완벽하지 않았다. 노비제는 제도면에서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이 반포되었다. 과거의 관직·품계 또는 유학 등의 직역(職域)대신 직업(職業)을 쓰게 하여 신분 표기는 사라졌다.¹⁷⁾ 하지만 호적에 쓴 직업을 통해 신분을 구별 할 수 있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職)은 사회적 지위를, 업(業)은 구체적 생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직업 기재를 통해 신분을 알

14) 허선아, 「조선시대 역관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사회적 위상」,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15쪽.

15) 지승중, 앞의 논문, 2000, 323쪽.

16) 조성윤, 앞의 논문, 2000, 347~352쪽.

17) 왕현중,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2, 302~303쪽.

수 있었다.¹⁸⁾ 호적의 정비가 있었지만 신분을 구별하려는 의식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신분 제도는 사회생활 속에 뿌리 잡아 변하지 않고 존재했다.

1950년 한국전쟁기에도 마을 내부에서 양반 출신과 천민 출신 간의 갈등이 있었다. 지주들은 과거 양반이었고 그 밑에 살아가는 머슴들은 주로 일반민·천민 출신이었다. 이들은 과거 주인이 자신에게 한 멸시와 천대 등을 이유로 주인을 부정하는 인민군에게 적극 협력했다. 신분제의 관념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¹⁹⁾

2) 백정 차별 문제

백정은 짐승을 잡거나 고기를 다루는 일을 불결하게 여긴 농경사회의 관습과 의식 속에서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되었다.²⁰⁾ 불교·유교의 영향아래 동물을 잡거나 고기를 다루는 일을 천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커졌다.²¹⁾ 백정에게는 기와집 거주 금지, 명주옷과 갓 및 가죽신 착용금지, 패랭이 갓 사용이 강제되었다. 상여·가마도 탈 수 없었으며 교육에서도 차별받았다.²²⁾

갑오개혁 이후에도 백정에 대한 차별은 변함이 없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이 반포되어 일반민과 같이 백정들의 호적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백정은 별도의 호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직업을 도한(屠漢)이라 적어 백정신분을 드러나게 했다. 1909년 3월 4일 법률 제8호로 공포된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백정의 호적도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민과 통합되었다. 그러나 백정은 여

18) 지승중, 앞의 논문, 2000, 326쪽.

19) 박찬승, 「한국전쟁과 마을 -기존 연구의 정리와 향후 연구의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419~421쪽.

20) 김중섭, 앞의 책, 2001, 37쪽.

21) 김중섭, 앞의 책, 1994, 47쪽.

22) 고숙화, 앞의 책, 2008, 6~7쪽.

전히 직업을 도한(屠漢)으로, 또는 붉은 점으로 표시 되었다.²³⁾

한편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정들은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교회 예배에서도 백정은 일반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볼 수 없었다.²⁴⁾ 백정과 백정 아닌 자가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의 의식이 용납하지 못했다. 1920년대 초에는 일제경찰이 광견병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죽였는데, 그 일에 백정들을 동원했다.²⁵⁾ 원래부터 하던 천한 일이라고 강제로 백정들을 동원했던 것이다. 1922년에는 백정들이 야유회를 한다고 기생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를 알게 된 일반 사람들이 기생들을 비난하며 기적(妓籍)에서 빼어버리기도 했다.²⁶⁾ 조선형평사(朝鮮衡平社)가 창립되던 1923년 당시 한국에는 40만 명의 백정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²⁷⁾

2. 형평 운동의 전개

1) 형평사의 조직과 활동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과 더불어 각 계각층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운동이 분출되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봉건적 신분제 문제에 억눌려 있던 백정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려 했다.²⁸⁾ 1923년 4월, 백정에 대한 차별을 타파하기 위

23) 위의 책, 9쪽.

24) 김중섭, 앞의 논문, 2009, 139쪽.

25) 김중섭, 앞의 책, 1994, 62쪽.

26) 위의 책, 56쪽.

27) 강준만, 『한국근대사상책』 6(사진신부에서 민족개조론까지), 인물과 사상사, 2008, 333쪽.

28) 고숙화, 앞의 책, 2008, 35쪽.

해 조선형평사(朝鮮衡平社)가 창립되었다. 이 때 발표된 ‘주지(主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主旨이다. (중략) 갑오년 6월 이후 칙령에 의해 백정이라는 칭호가 없어지고 평민으로 되었던바, 사랑으로서 상호 부조하고 생명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통의 번영을 기하고자 한다.²⁹⁾

형평사의 창립멤버는 백정자산가인 이학찬, 선진지식인 동아일보 진주지국장 강상호, 조선일보 진주지국장 신현주, 진주자작농회 간부 천석구, 백정출신 유학과 장지필 등이었다.³⁰⁾ 형평사는 부유한 백정출신과 비백정출신 지식인 및 사회운동가들이 함께 만들었으며 실무는 주로 백정출신 젊은 사원(社員)들이 담당했다.³¹⁾ 당시 언론도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에 찬동하였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진주 재주(在住)의 백정동포가 꺾기하여 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계급타파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들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시대에 적합한 행동이라 생각된다. 운동의 철저한 노력을 백정동포에게 원하며 (후략)³²⁾

형평사는 일반사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본사-지사-분사의 위계질서 아래 전국적인 조직을 마련했다.³³⁾ 형평사는 신분적 차별철폐를 위해 인

29) 『조선일보』 1923년 4월 30일(김재영, 앞의 논문, 2007, 38쪽 재인용.)

30) 고숙화, 앞의 책, 2008, 48쪽.

31) 김중섭, 앞의 책, 1994, 123쪽.

32) 『조선일보』 1923년 5월 3일자 사설(고숙화, 앞의 책, 2008, 59쪽 재인용.)

33) 김중섭, 앞의 책, 1994, 121쪽.

권운동을 진행했고, 도축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가졌던 운영권·소유권이 지방관청으로 넘어가자 수육판매조합을 결성하여 생존권 수호운동을 진행했다.³⁴⁾ 백정의 교육수준이 일반민보다 열악한 것을 알고 예의범절, 신문강독 및 야학을 통한 계몽활동도 실시했다.³⁵⁾

한편 조선의 형평 운동은 일본의 수평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1871년 해방령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졌다. 하지만 부락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었다. 부락민차별철폐 및 인간해방을 목표로 1922년 3월, 다음과 같은 강령(綱領)으로 교토에서 전국수평사(全國水平社)가 창립되었다.³⁶⁾

- 우리 특수부락민은 부락민 자신의 행동에 의해 절대적 해방을 기한다.
- 우리들 부락민은 경제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사회에게 요구하고 그 몫으로써 그 획득을 기한다.
- 우리들은 인간성의 원리에 각성하고 인류 최고의 완성을 향하여 돌진한다.³⁷⁾

중세부터 가축, 피혁 등 특수업을 담당하는 에타(穢多), 히닌(非人)들은 농촌 주변에 살았다. 하지만 농경민 위주의 촌락에서는 농경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을 천시했다. 16세기 말인 1591년, 막번체제 아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신분령이 만들어지면서 에타와 히닌은 거주지역이 한정되고 천민으로 취급되었다. 그 후 에타, 히닌 등의 천민집단인 부락민들에 대한 차별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1871년, 해방령이라 하는 천민폐지령이 공포되면서 법제상 천민에 대한 호칭이 폐지되고 이들이 평민화 되었다. 하지만

34) 고숙화, 앞의 논문, 2001, 340~341쪽.

35) 이나영, 「衡平社 運動의 歷史的 評價」,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21쪽.

36) 三宅明正ほか18名, 『日本史A現代からの歴史』, 東京書籍, 平成25年, 106쪽.

37) 고숙화, 앞의 책, 2008, 191쪽.

명목상의 차별철폐에 불과했다. 천민폐지령이라는 정치적 조치만 있을 뿐 부락민의 생활 및 사회경제적 조치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의식개혁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도 도외시 되었다.³⁸⁾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 민중의 사회활동이 커지는 시대 상황 속에 1922년 교토에서 수평사가 결성되었다. 부락민들의 주체적 활동으로 사회의 변혁을 통해 차별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1년 뒤, 1923년 조선에서 형평사가 창립되자 동아일보도 이것이 일본의 수평운동에 자극을 받은 것 같다고 보았다. 일본 언론도 “형평사 창립이 수평사의 선동인가?” 라고 하는 등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평사 창립 이전 이미 수평사 관련 소식이 조선에 보도 되고 있었으며 두 단체의 배경과 목적, 명칭도 비슷하였다.³⁹⁾ 또한 형평사의 창립 멤버였던 장지필은 일본 유학기간 동안 수평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기에 형평사 창립과정에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⁴⁰⁾ 1924년 형평사 1주년 기념식 때 사회운동가들의 축사와 함께 일본의 수평사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보내준 축하 전보 낭독이 있었다.⁴¹⁾ 일본 군마현에서는 조선에서 학대받는 백정동포가 형평 운동을 일으킨 것은 큰 의의가 있기에 수평사와 서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형평사와 수평사는 창립초기부터 동료의식과 연대감을 갖고 상호 지지를 보내며 협력활동을 모색하고 교류를 확대해갔다. 하지만 이들의 연대는 형평 운동이 사회주의 계급운동으로 바뀌어가자 멀어지기 시작했다. 1930년대 해소론과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으로 활동이 탄압 받기 시작하자 두 단체의 연대는 더욱 불가능해졌다.⁴³⁾

38) 전광하, 「일본의 부락차별현상과 극복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380~385쪽.

39) 김중섭, 앞의 논문, 2009, 145~146쪽.

40) 진덕규, 「衡平社運動의 自由主義的 改革思想에 대한 認識」 『한국정치학회보』 10, 한국정치학회, 1976, 179쪽.

41) 김중섭, 앞의 책, 1994, 137쪽.

42) 박세경, 앞의 논문, 2009, 130쪽.

43) 김중섭, 앞의 논문, 2009, 156~164쪽.

형평 운동 내부에는 갈등도 있었다. 형평사는 동기와 목적이 다른 모든 조선인이 망라되었기에 운동방향과 조직방안에서 이견이 나타났다.⁴⁴⁾ 진주파와 서울파의 갈등이 있었다. 진주파는 신분차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운동으로써 형평 운동을 강조하며 교육과 계몽에 치중했다. 반면 서울파는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계급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평등한 경제적 상황도 강조하며 사원들의 생활문제에 있어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다.⁴⁵⁾ 이들은 본부의 위치를 두고 또 한 번 갈등 했다. 형평사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효율성을 위해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본사 이전문제는 당시 정세의 변화,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에 따른 사상계의 변동과 함께 운동노선 방향성 문제와 관련되었다.⁴⁶⁾ 결국 본사는 서울로 이전되었다.

1926년 4월 만주에서 고려혁명당이 결성되었다. 국내에서는 천도교와 형평사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창립된 지 얼마 안 된 1926년 12월 28일, 집행위원 이동락이 만주에서 잡혀 비밀문서가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형평사 임원들이 1927년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체포된 임원 중 서광훈, 유공삼, 이동구, 장지필, 오성환, 조귀용은 형평사의 핵심지도자였다. 체포된 지 1년 4개월 뒤 장지필과 조귀용은 무죄로 풀려났다. 1928년에 서광훈, 1929년에 유공삼, 1930년에 오성환, 1931년에 이동구가 풀려났다.⁴⁷⁾

고려혁명당 사건으로 서울파의 장지필, 오성환, 조귀용, 서광훈과 진주파의 핵심지도자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형평 운동 진영 내에 급진파라 불리는 젊은 사회주의자 지도층이 등장했다. 그러자 대립하던 진주파와 서울파의 노장층(온건파)은 연합하여 급진파와 갈등했다.⁴⁸⁾ 온건파는 인권옹호와 신

44) 고숙화, 앞의 책, 2008, 197쪽.

45) 김중섭, 앞의 책, 1994, 146~147쪽.

46) 박세경, 앞의 논문, 2009, 126쪽.

47) 김중섭, 앞의 책, 1994, 251~254쪽.

48) 위의 책, 226쪽.

분차별철폐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급진파는 계급투쟁의 측면을 중시하여 타 사회운동과 제휴하여 정치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⁴⁹⁾

형평 운동에 대한 반대도 있었다. 신분적 특권을 잃을 것을 염려한 계층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이들이 주로 반대했다.⁵⁰⁾ 특히 농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들은 사회 최하층 신분이었던 백정들이 신분해방과 평등을 주장하자 이를 백정과 자신들의 동질화 또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신의 하락으로 인식했다.⁵¹⁾ 1923년 5월 진주농민들의 형평 운동 반대결의사항에는 쇠고기를 사먹지 않을 것, 형평사는 배척할 것, 형평운동과 관계하는 사람은 백정과 동일한 대우를 하며 형평사를 배척할 것 등을 결의했다.⁵²⁾

1923년 8월 11일, 형평사 김해 사원들은 김해분사를 창립하고 축하식을 열었다. 형평사원인 김해 청년회 간부들과 합성학교(合成學校) 간부들은 형평사원과 합성학교 일반학생들에게 축하식에 오는 북성회 강연단 마중을 부탁했다. 그러자 일부 합성학교 학생들이 백정인 형평사원과 함께 마중을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마중을 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형평 운동에 호의적인 학생들과 마을사람들은 북성회 강연단 마중을 나가지 않은 학생들의 강연회 입장을 가로막았다. 백정과 함께 마중 가는 것도 싫은데 같이 앉아서 강연을 들을 수 있겠냐 하면서 입장을 가로막았다. 이에 입장을 제지당한 학생들은 불평을 호소했고, 평소 형평 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일부 주민들도 이들의 불평에 동조했다. 8월 14일, 이들의 불평은 폭력으로 나타났다. 청년회관을 습격하여 기물을 파손했으며 형평사에 호의적인 단체와 간부들, 형평사원과 관련된 사람들을 공격했다.⁵³⁾

49) 고숙화, 앞의 논문, 2001, 348쪽.

50) 김중섭, 앞의 책, 1994, 185쪽.

51) 고숙화, 앞의 논문, 1995, 166쪽.

52) 김중섭, 앞의 책, 2001, 70쪽.

53) 김중섭, 앞의 책, 1994, 162~165쪽.

2) 형평 운동의 해소와 변질

고려혁명당 사건으로 핵심지도층이 잡혀 들어가자 그 공백을 젊은 사회주의 성향의 지도자들이 메웠다. 형평사는 이때부터 급진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⁵⁴⁾ 이들은 1928년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에 입각해서 형평사 온건파 지도자가 일제와의 타협에 빠져 개량주의화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제와의 타협에 빠진 개량주의적인 온건파와 함께 형평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⁵⁵⁾ 형평사 해소론은 1931년 수원분사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형평사는 소부르주아집단이기 때문에 해소함과 동시에 도부노동조합(屠夫勞動組合)으로 전환하여 일반 산업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제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⁶⁾ 해소론을 주도한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급진주의자들은 형평 운동을 계급운동의 한 부분으로 재편하려 했다. 이와 반대로 온건파였던 노장층은 형평사의 고유한 특수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1년 내내 정기전국대회, 도지부 연합회에서 해소론이 논쟁되었다. 그러나 도대회, 전국대회에서 해소안을 공식 채택하지 않았고 중앙총본부도 해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소를 지지하는 급진세력이 소수였기 때문이다. 급진 활동가들의 세력이 형평운동 전반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국적으로 조직을 주도할 만한 힘이 없었다.⁵⁷⁾

형평사 해소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사건은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이다. 1933년 1월 말부터 광주경찰서가 각 지역의 활동적인 젊은 형평사원들을 잡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8월에 돼서야 경찰은 이 사건을 공식발표했는데 14명이 구속되고, 18명은 불기소, 33명은 기소 유예로 풀려났다. 기소된

54) 위의 책, 251~256쪽.

55) 고숙화, 앞의 책, 2008, 280~281쪽.

56) 고숙화, 앞의 논문, 2001, 353쪽.

57) 김중섭, 앞의 책, 1994, 269~272쪽.

사원은 모두 20~30대의 젊은 지도자들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비밀단체인 형평청년전위동맹을 결성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산사원을 선동하여 동맹파업유도, 형평사 해체 및 공산주의 단체를 결성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지지부진하게 진행시켰다. 1933년에 검거되기 시작하여 1935년 11월에 가서야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었다. 1936년 3월, 1심이 끝나고 이종률을 제외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감옥에 있었고 재판이 끝난 1936년 11월이 되어서야 풀려났다.⁵⁸⁾ 이 무렵 검거된 사람들은 모두 무죄로 풀려났지만 형평사는 이미 대동사(大同社)로 바뀌어 그 의미가 상실된 상태였다.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은 형평사내의 급진세력뿐만 아니라 형평 운동 자체의 종언을 가져왔다.⁵⁹⁾

고려혁명당 사건으로 급진세력이 등장했지만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으로 계급해방을 주장하던 급진세력이 사라졌다. 형평사를 해소하여 무산사원 중심의 직업별 조합, 즉 도부조합을 조직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계급운동으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은 소멸되었다. 이와 함께 형평사 활동도 퇴조하기 시작했다. 지·분사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지역 활동을 재건하려 했지만 누적된 부채 상환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원의 주요 관심은 사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있었다. 형평사는 단순한 경제적 친목 이익단체로 변모함과 동시에 일제의 파쇼정책과 맞물려 일제에 영합하는 단체로 전락하였다.⁶⁰⁾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에서 연루된 급진과 지도자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사는 1935년 대동사라는 새로운 단체로 변모했다.⁶¹⁾ 장지필이 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8) 위의 책, 279~284쪽.

59) 김중섭, 앞의 책, 2001, 126쪽.

60) 고숙화, 앞의 책, 2008, 316~321쪽.

61) 고숙화, 앞의 논문, 1995, 230쪽.

최초의 형평운동을 일으킬 때에 약 10년의 시기를 예상하고 선전, 사업, 실행의 3기로 나누어 (중략) 진전해왔는데 이 세 시기가 다 지난 (중략) 이제는 형평운동은 완성한 것으로 봅니다. (중략) 대중과 같은 보조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명칭도 새로 고친 것이다.⁶²⁾

총본부를 대전으로 옮긴 대동사는 직원들의 경제 이익을 지키는 것에 치중하고 나아가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⁶³⁾ 유산계급 온건파에 의해 점차 친일화 되었으며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 순응해갔다. 대동사는 식민지배 세력에 대한 협조도 주저하지 않았다. 1938년에는 비행기 대동호 헌납식과 기관총 대금을 헌금했다.⁶⁴⁾ 결국 대동사는 일제와의 협력을 통해 직원 중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전락했다. 초기의 인권해방운동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62) 『조선일보』 1935년 4월26일(김중섭, 앞의 책, 1994, 288쪽 재인용.)

63) 김중섭, 앞의 책, 2001, 129쪽.

64) 『동아일보』 1938년 7월11일, 8월30일(김중섭, 앞의 책, 1994, 289쪽 재인용.)

Ⅲ. 형평 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 분석과 문제점

1. 신분 문제와 백정 차별 문제

1894년 갑오개혁으로 세습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신분차별 관념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신분제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짧게 언급하거나 모호하게 설명한다. 다만 미래엔과 지학사 교과서만 신분제와 관련된 사회의식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한다.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과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차별적 신분의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⁶⁵⁾

갑오개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신분 제도가 폐지되고 고문과 연좌법, 조혼 등 봉건적인 악습이 금지되었으며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었으나 사람들의 의식까지 바뀐 것은 아니었다.⁶⁶⁾

신분제와 관련하여 사회의식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현실은 미래엔 교과서의 다음과 같은 사실 서술에서도 알 수 있다.

매국노 이근택의 아들은 한규설의 사위였는데 그 딸이 시집갈 때 하녀 한명을 데리고 갔다. 이근택이 대궐에서 돌아오며 숨이 차서 땀을 흘리며 부인을 대하였다. 그는 을사늑약을 맺은 일을 말하여 “내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때 하녀가 부엌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부엌

65)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1, 193쪽.

66)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1, 170쪽.

칼을 집어 들고 뛰어나오며 소리쳐 말하기를 (중략) 내 비록 천인이기로서니 어찌 개, 돼지의 종이 되고 싶겠는가? 내 힘이 약해서 너를 반 토막으로 참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하고 다시 한규설의 집으로 도망쳐 왔다.⁶⁷⁾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리오.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분 집은 예전 대갓집이 그렇듯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중략)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1910) 12월 30일에 큰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⁶⁸⁾

미래엔 교과서는 1905년 당시에 하녀인 천민이 존재했고, 1910년 이회영 일가가 만주로 갈 당시에 여전히 종살이 하던 천민이 존재했다고 서술한다. 여전히 사회 속에 신분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자료들은 신분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사료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는 사료로 제시되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에 관한 내용이다. 두 번째 사료는 무장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주로 넘어간 이회영 일가의 이야기로 1910년대 이후 해외무장독립운동을 설명하는데 보조 자료로 제시되었다.

미래엔 교과서에 제시된 위의 두 가지 사료는 신분제의 문제를 보여주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히 지적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독립운동만을 강조한 반면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문사, 비상, 삼화 교과서는 신분제 문제에 대하여 ‘극복’, ‘완화’, ‘기틀의 마련’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 신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67) 한철호 외, 앞의 책, 2011, 175쪽.

68) 위의 책, 233쪽.

신분차별의식은 독립협회의 자유 민권 운동, 애국 계몽 운동, 의병 운동을 등을 거치면서 점차 극복되었다.⁶⁹⁾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 과거제, 조혼, 과부 재혼 금지 등이 폐지되어 법적으로 신분과 성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거나 완화되었다.⁷⁰⁾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거치면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조혼이나 과부의 재혼 금지 등과 같은 악법들이 폐지되었다. 신분제가 무너지고 근대적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⁷¹⁾

법문사 교과서는 이처럼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뿌리 깊게 남아있던 차별의식이 자유 민권 운동, 애국 계몽 운동 등 여러 운동을 통해 극복되었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자유 민권 운동은 교육진흥·산업개발·자주독립을 주로 강조하며 자주국권 및 자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서양의 이권침탈에 반대하는 국권운동이었다.⁷²⁾ 애국 계몽 운동은 국민 계몽, 실력 양성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 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어와 역사 교육을 통해 자주정신을 고취하려 했다.⁷³⁾ 하지만 교육 대상에 천민층도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의병 운동은 명성황후 시해 이후 일어난 을미의병부터 군대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정미의병까지를 말한다. 의병 운동은 주로 국권 회복의식을 강조했다.⁷⁴⁾ 양반층부터 평민층까지 의병장이 되어 여러 군데에서 봉기를 했지만 평민의병장의 등장이 곧 신분 문제의 극복이라 할 수는 없다.

비상 교과서는 차별이 없어지거나 완화되었다고 서술한다. 일부 중인이

69)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법문사, 2011, 200쪽.

70)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1, 198쪽.

71)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1, 198쪽.

72) 도면희 외, 앞의 책, 2011, 181쪽.

73) 김태웅,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6, 가람기획, 2013, 304~309쪽.

74) 박찬승 편,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4, 148~149쪽.

관직이 오른 것을 그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중인층의 이야기일 뿐이고 나머지 대다수 차별받는 농민·천민 층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소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분제 문제가 완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삼화 교과서는 근대적 평등사회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차별의식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천민이 존재했으며, 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의식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1923년 형평 운동이 일어났다. 미래엔과 지학사 교과서도 차별의식만 이야기했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남아 있던 신분 차별에 대해 서술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신분 차별은 의식과 생활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신분제 청산이 완벽하지 못했다. 이는 호구조사규칙의 호적 작성 방식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아관파천 이후 정부는 갑오개혁의 대표적 성과인 신분제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신분을 기재하던 종래의 호적 대장과 달리 호주의 성명, 직업만을 명시한 호구조사규칙을 반포하였다. (중략) 갑오개혁을 통해 법적으로 신분차별이 없어졌지만 백정들은 일제 식민통치시기에도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호적에도 직업이 백정으로 기록되었다.⁷⁵⁾

아관파천 이후 정부는 호적에서 신분을 빼고 대신 직업을 쓰도록 하였다.⁷⁶⁾

조선시대 백정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신분적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갑오개혁 때 법제상의 신분 차별은 폐지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천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더욱

75) 최준채 외, 앞의 책, 2011, 200,245쪽.

76) 이인석 외, 앞의 책, 2011, 198쪽.

이 일제는 호적에 붉은 점 등으로 표시하여 그 신분이 드러나게 했다.⁷⁷⁾

1894년 갑오개혁으로 백정들은 법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은 여전하였다. 1910년 이후 조선 총독부도 백정을 호적에 등재하면서 도한이라는 붉은 글씨를 써넣어 차별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⁷⁸⁾

호구조사규칙으로 제도적으로 신분제가 무너졌다고 보았지만 직업을 통해 여전히 신분을 알 수 있었다. 법문사와 삼화 교과서는 호적에서 신분 대신 직업을 쓰게 하였다고 했지만 직업란에 백정이라고 쓰게 하여 여전히 신분을 알 수 있었다. 미래엔과 천재교육 교과서는 호적에 붉은 점, 도한(屠漢)이라고 쓰게 하여 제도적으로 여전히 차별을 유지했다고 서술한다. 즉 제도적인 면에서도 세습신분제의 청산이 완벽하지 못했던 것이다.

신분제 폐지와 관련하여 의식과 제도적 측면에 대해 법문사 교과서 서술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아야한다. 법문사 교과서는 앞서 신분제에 대해 신분 차별 의식이 자유 민권 운동, 애국 계몽 운동 등을 거치면서 극복되었다고 서술했다. 또한 신분제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호주의 성명 및 직업만 쓰는 호구조사규칙을 반포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245쪽 형평 운동에 대한 설명에서는 법적으로 신분 차별이 없어졌지만 식민지시기에도 사회적 차별이 있었으며, 호적에도 직업이 백정으로 기록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앞뒤 서술이 서로 맞지 않는 오류이다.

특히 가장 많이 차별받았던 백정에 대한 서술도 문제이다. 6종의 교과서는 모두 백정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백정의 지위, 차별실태에 대해서는 모두 서술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백정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미래엔, 삼화, 지학사 교과서는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법문사, 비상, 천재교육 교과서 3종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77) 한철호 외, 앞의 책, 2011, 257쪽.

78)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1, 227쪽.

돼지나 소 등의 가죽을 도살하거나 고기를 파는 행위를 하였던 신분으로 직업은 세습되었다. 이들은 잡은 가죽의 가죽을 이용한 피혁가공업을 하기도 했다.⁷⁹⁾

도살 및 고기 파는 일에 종사했던 백정⁸⁰⁾

전통적으로 도살과 고기 판매, 가죽 제품과 고리 제품의 판매 등을 생업으로 해온 계층이었다. 이들은 따로 자신들만의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였으며 상투를 틀거나 두루마기를 입을 수 없었다.⁸¹⁾

고기 파는 일,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백정에 대해 정의 하지만 이러한 직업이 왜 사회적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고기 다루는 일을 불결하게 여긴 것이 직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확대되어 집단 차별 의식을 형성했다던지⁸²⁾ 백성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조선이 농본주의의 농경사회여서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 종사자들은 차별을 받았다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

삼화, 지학사 교과서는 백정의 사회적 차별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백정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⁸³⁾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는 철폐되었지만 최하 신분층이었던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오히려 심해졌다.⁸⁴⁾

79) 최준채 외, 앞의 책, 2011, 245쪽.

80) 도면희 외, 앞의 책, 2011, 255쪽.

81) 주진오 외, 앞의 책, 2011, 227쪽.

82) 김중섭, 앞의 책, 2001, 37쪽.

83) 이인석 외, 앞의 책, 2011, 248쪽.

위의 두 교과서는 어떻게 차별이 심해졌는지,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 없이 단지 차별 받았다고만 하니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지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호적에서 도한(屠漢)이라 표시되는 등 사회적으로 여전히 차별받았다고 서술해야 한다.

백정들은 또한 일반민들과 다르게 교육 및 생활에서 차별을 받았다. 법문사와 천재교육 교과서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학교 입학이 거부되거나 학교생활에서도 차별을 받았다.⁸⁵⁾

백정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으며 사립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신분이 밝혀지면 학부모들의 항의로 퇴학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상투를 틀거나 두루마기를 입을 수도 없었다.⁸⁶⁾

위의 법문사, 천재교육 교과서는 백정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일반민들이 입을 수 있는 두루마기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위의 두 교과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미래엔, 비상, 삼화, 지학사 4종의 교과서는 교육 및 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패랭이 갓을 쓰거나 기와집 거주 금지 등 구체적 차별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학생들이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신분제 문제에 대해 미래엔과 지학사 교과서는 사회적 차별 의식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1923년 일어난 형평 운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도 남아있던 차별을 언급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다. 나머지 교과서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84) 정재정 외, 앞의 책, 2011, 215쪽.

85) 최준채 외, 앞의 책, 2011, 245쪽.

86) 주진오 외, 앞의 책, 2011, 227쪽.

것을 설명하지 못해, 후에 형평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백정차별에 대해서는 법문사, 비상, 천재교육 3종의 교과서가 도살 및 고기 파는 일을 하는 백정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백정의 지위·직업에서 오는 차별의 실태를 언급하지 못했다. 삼화와 지학사 교과서는 단순하게 백정은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고 서술했다. 그러므로 백정이 왜 차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 받았는지에 대한 서술이 보완되어야 한다.

2. 형평 운동에 대한 서술 분석

한국사 교과서 6종 모두 차별대우에 항의하여 1923년 4월,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를 결성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창립과정에 있어서 1년 전 일본에서 만들어진 수평사 조직에 영향을 받았다는 서술은 천재교육 교과서만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백정 같은 천민이 사는 곳을 부락이라 하였는데 이곳에 거주하던 부락민들이 차별대우 폐지를 주장하며 만든 단체가 수평사이다.

1923년 4월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형평 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도 천민 신분이던 부락민들이 수평사를 조직하여 수평운동을 펴고 있었는데, 형평 운동은 당시 일본의 수평사가 전개한 수평운동의 영향을 받았다.⁸⁷⁾

일본교과서에서도 수평사 조직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조선과의 연대에 대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일본교과서는 신분 문제와 수평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87) 위의 책, 227쪽.

천황에 의해 사민평등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차별의식은 민중 사이에 뿌리 깊은 나머지 해방령 반대 폭동도 일어났다. (중략) 사민평등이라 불리는 근대사회에서도 긴 시간에 걸쳐 차별을 받아 괴로워하는 피차별부락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위해 일어섰다. 1922년 피차별부락의 청년 조직이 중심이 되어 전국수평사가 조직되었다.⁸⁸⁾

1871년 해방령이 선포되어 에타, 히닌으로 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도상 평민과 같이 했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은 뿌리 깊게 남았다. (중략) 피차별 부락민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칭송하며 동정에 의지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평등을 위해 전국수평사를 결성했다.⁸⁹⁾

1871년 지금까지의 에타, 히닌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신분 해방으로 평민과 같은 지위를 획득했다. (중략) 사회적 차별에 괴로워하던 피차별부락의 사람들은 1922년 전국수평사를 결성하여 단결하며 차별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부락해방운동을 시작했다.⁹⁰⁾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 시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에타, 히닌은 이후에도 사회생활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 (중략) 차별에 고통 받던 피차별부락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1922년 전국수평사를 결성했다. 그 후에 각지의 수평사지부가 만들어지고 부락해방운동을 전개했다.⁹¹⁾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대체로 해방령이라 불리는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자 신분해방을 위해 부락민 차별 반대운동인 수평운동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형평 운동과의 연대, 연합에 대

88) 三宅明正ほか18名, 앞의 책, 平成25年. 46,106쪽.

89) 君島和彦加藤公明ほか14名, 『高校日本史A』, 實教出版, 平成25, 40,97쪽.

90) 鳥海靖ほか3名, 『現代からの日本史A』, 山川出版社, 平成25年. 23,99쪽

91) 外園豊基ほか6名, 『高等學校日本史A』, 第一學習社, 平成25年. 38,82쪽.

한 설명은 없다.

즉 양국의 교과서 모두가 수평사와 형평사의 연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선과 일본 양국의 언론이 1923년 당시 수평사와 형평사의 연대를 언급했는데 교과서에서도 당연히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평 운동이 시작되자 형평 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도 일어났다. 그러나 미래엔, 비상, 삼화, 지학사 교과서에는 반대 운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편 법문사와 천재교육 교과서는 매우 단편적으로 형평 운동에 반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형평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도 일어났다.⁹²⁾

형평운동에 대한 반발도 없지는 않았다. 이들은 형평사의 사무소를 습격하거나 형평사 회원들이 판매하는 고기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⁹³⁾

반형평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분 질서 속에서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질서가 바뀌는 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⁹⁴⁾ 이는 곧 형평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도 여전히 신분제 문제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신분제 문제가 계속되었다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신분 해방 운동에 반대하는 반형평 운동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형평사는 또한 본부의 위치를 두고 진주파와 서울파로 나뉘어 대립했다.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더불어 고려혁명당 사건 이후에는 급진파와 온건파로 이념 대립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분열을 거듭했는데 교과서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특히 미래엔, 비상, 삼화, 천재교육의 4종 교과서에는

92) 최준채 외, 앞의 책, 2011, 246쪽.

93) 주진오 외, 앞의 책, 2011, 227쪽.

94) 김중섭, 앞의 책, 1994, 189쪽.

내부분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법문사와 지학사 2종의 교과서만이 분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920년대 말에는 형평 운동 내부에서 급진파와 온건파가 대립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갔다.⁹⁵⁾

형평 운동은 내부에 이념적 갈등으로 활동의 통일성이 상실되었다.⁹⁶⁾

법문사 교과서의 경우 급진파와 온건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지학사 교과서는 이념적 갈등이라고만 설명했지만 그것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삼화 교과서를 뺀 5종 교과서에서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하는데, 확대되는 과정에서 진주파와 서울파가 대립한 이야기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과 고려혁명당 사건으로 급진파가 조직을 장악하며 해소론을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

형평 운동의 내부분열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에 일어난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의 해소와 민족해방운동의 분열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일부 항일운동 세력들은 좌우통합을 시도했지만 대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기 때문에 쉽게 통합되지 못했다. 코민테른의 테제로 사회주의자들은 조직을 해체하고 직접 민중속으로 들어가서 소작쟁의, 노동자파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신간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형평 운동의 분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에 일어난 항일운동의 좌우합작과 분열 과정, 신간회의 해소 및 시대적 상황을 유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분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한편 미래엔, 비상, 삼화, 지학사 교과서는 사회주의 운동과의 연대에 대

95) 최준채 외, 앞의 책, 2011, 246쪽.

96) 정재정 외, 앞의 책, 2011, 215쪽.

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다른 사회 운동단체와 연대하여 항일민족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⁹⁷⁾

형평사는 파업과 소작 쟁의에 참가하는 등 다른 분야의 단체들과도 협력했다.⁹⁸⁾

여러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면서 각종 파업이나 소작 쟁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⁹⁹⁾

형평사는 여러 사회운동 단체와 협력하면서 파업이나 소작쟁의에도 참여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혔다.¹⁰⁰⁾

형평 운동은 소작쟁의, 노동자 파업, 계급 문제 등 여러 활동을 다른 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형평사 내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했다. 사회주의자들이 타 운동 단체들과 연대해서 진행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없다. 당시 사회주의 운동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형평 운동은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을 겪으며 퇴조의 길로 들어섰다. 1935년 대동사(大同社)로 개칭되면서 이전의 인권운동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미래엔, 비상, 삼화 3종의 교과서는 퇴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형평 운동의 의의만 보려는 한계점이다. 나머지 법문사,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는 일제의 탄압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급격히 쇠퇴하여 친목을 도모하

97) 한철호 외, 앞의 책, 2011, 257쪽.

98) 도면희 외, 앞의 책, 2011, 255쪽.

99) 이인석 외, 앞의 책, 2011, 248쪽.

100) 정재정 외, 앞의 책, 2011, 215쪽.

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의 운동으로 변하였고 1940년대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¹⁰¹⁾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1930년대 이후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¹⁰²⁾

일제는 형평 운동을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운동으로 간주하고 항상 감시하고 탄압하였다. 1930년대 들어 경찰의 압박이 강화되자 형평 운동은 급격히 퇴조하였고 1930년대 중반에 들어 사실상 막을 내렸다.¹⁰³⁾

1931년 일제는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확대 시켰다. 이로 인해 식민지 조선에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다. 때문에 형평 운동 및 여러 운동 단체들을 합법화 상태로 나들 수 없었다.¹⁰⁴⁾ 일제는 형평 운동의 탄압을 위해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을 일부러 일으켜 탄압했다. 이후 형평 운동은 점차 친일적인 이익집단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1935년 결국 대동사로 개칭되어 이후 친일 활동을 했다. 이익집단으로 변한 대동사에 대한 언급은 법문사 교과서에서만 하고 있다.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과 이로 인한 민족말살 정책으로 형평 운동은 탄압을 받고 퇴조해갔으며 친일적으로 변화해갔다. 그런데 이러한 퇴조의 과정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형평 운동이 왜 사라져갔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리해보자면 법문사 교과서가 일본 수평사와의 연대라던지 사회주의와의 연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교과서에 형평 운동에 대한 반대운동, 급진파와 온건파의 내부 분열, 형평 운동의 퇴조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서술을 하고 있다. 신분 문제와 형평 운동에 관하여 당시 일어났

101) 최준채 외, 앞의 책, 2011, 246쪽.

102) 정재정 외, 앞의 책, 2011, 215쪽.

103) 주진오 외, 앞의 책, 2011, 227쪽.

104) 김중섭, 앞의 책, 1994, 265쪽.

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교과서에 서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갑오 개혁으로 신분제가 공식적·제도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신분 문제가 있어 왔고, 형평 운동은 이와 같은 신분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근대 사회로 이행되었으나 신분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했고, 주권이 없어 근대 시민이 될 수 없었던 식민지의 현실을 제대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신분제 폐지 이후의 신분 문제를 형평 운동과 관련시켜 제대로 언급해야 할 것이다.

IV. 교육방안 연구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분 문제와 형평 운동에 대한 교육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교과서 채택률이 높은 미래엔 교과서를 중심으로 신분 문제 및 형평 운동에 관한 수업지도안을 작성해 보았다.

<표2> 형평 운동 학습 수업지도안

역사과 교수·학습 수업지도안		
대단원	VI.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중단원	4. 나라 안에서 다양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다	
소단원	4-6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며	
학습목표	1. 신분제 폐지 이후의 사회상황을 알 수 있다. 2. 형평 운동이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 이야기 할 수 있다.	
학습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내용
도입	전시학습 확인	좌우합작단체인 신간회의 결성과정과 해소과정에 대해 정리해본다.
	동기유발	이번 시간에 배울 신분 문제와 형평 운동에 대해 EBS 클럽뱅크의 동영상을 시청하며 동기를 유발한다.
	학습목표 제시	1. 신분제 폐지 이후의 사회상황을 알 수 있다. 2. 형평 운동이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 이야기 할 수 있다.
전개	학습활동	1. 신분제의 폐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세습신분제가 법제적으로 폐지되었다. 호구조사규칙으로 호적에 신분(身分) 대신 직업(職業)을 쓰게 하여 신분을 알 수 없게 했다. 하지만

	<p>신분 차별적인 관념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번의 제도적 폐지로 신분 의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식민지시기에 접어들면서는 근대 평등사회, 근대 시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이 신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p> <p>2. 백정의 삶의 모습</p> <p>일반민이 농사를 짓는 것과는 달리 백정은 가축을 도살하거나 고기를 파는 것을 직업으로 했다. 이들은 직업을 세습했으며 농사를 짓는 일반민 마을과 떨어져서 이들만의 거주구역에서 살았다. 유교·불교의 영향 속에 이들 직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집단 차별 의식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차별받게 되었다.</p> <p>3. 형평 운동의 전개</p> <p>1919년 3·1운동 이후 각계계층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분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일본 수평사와의 영향 속에 1923년 백정의 인권해방운동인 조선형평사가 만들어졌다. 형평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쇠고기 사먹지 않기, 형평 운동 습격하기 등 이에 반대하는 운동도 일어났다.</p> <p>형평 운동은 한편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내부 갈등이 있었다. 본부의 이전 문제, 인권운동만을 주장하는 쪽과 계급운동으로 전환하여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를 주장하는 온건파와 급진파의 내부 대립,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이념 대립, 해소론 대립으로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 고려혁명당 사건, 형평 청년전위동맹 사건을 거치면서 형평 운동은 퇴조하기 시작하였고 일제의 탄압정책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1935</p>
--	---

		년 대동사로 이름을 바꾼 뒤로는 친일적인 단체로 전략하였다.
정리 및 차시예고	탐구활동 형성평가 차시예고	제시된 탐구활동 학습지를 통해 오늘 배운 신분제 폐지 이후의 상황과 형평 운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한다. 탐구활동에 있는 단답식 문항 정답을 발표한다. 다음시간에는 무장독립전쟁에 배울 것을 주지시킨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수업시간에 학습지 사용을 권장한다. 학습지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았다.

<표3> 식민지시기의 신분 문제 탐구활동

식민지시기의 신분 문제 탐구활동

★ 다음의 그림을 통해 1920년대 사회상을 살펴보자.





대한독립만세 시위 형평 운동 포스터 소년운동(어린이날 포스터)

1919년 3월1일 식민지 조선에서는 대한독립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사회운동의 분출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금지했던 정당과 단체를 허가하고 인정했

으며,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는 소년 운동, 형평 운동, 여성 운동 등 보다 다양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분출되기 시작했다.

1. ()에 들어갈 용어를 적어보자.

조선후기부터 흔들리던 신분제는 갑신정변, 동학 농민운동을 걸쳐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신분 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고문과 연좌법, 조혼 등 봉건적인 악습이 금지되었다. 제도적으로는 평등 사회를 지행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까지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었다.

2. ()에 들어갈 용어를 적어보자.

일제식민지시기에도 ()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이들은 호적상에도 붉은 점, 도한(屠漢)등으로 쓰여져 신분을 알 수 있게 했다. 제도적으로 신분이 폐지되었지만 교육에서도 차별을 받았으며 생활도 나아지지 않았다.

3. ()에 들어갈 용어를 적어보자.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로 식민지 지배가 변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정당과 단체를 허가하고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 1923년에는 백정들이 스스로의 인권해방을 위해 ()을 일으켰다.

형평 운동에 대해서도 학습지로 정리해 보자.

<표4> 식민지시기 형평 운동에 대한 탐구활동

식민지시기 형평 운동에 대한 탐구활동

★ 조선형평사 설립 취지문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本社)의 중요한 뜻이다. (중략) 친하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비천하게 굴종하였던 자는 누구였는가? 아아, 그것은 우리 백정이 아니었던가? (후략)

1. 설립 취지문을 읽고 드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2. 조선형평사와 일본수평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형평 운동 포스터



수평사 선전문구

3. 아래의 키워드를 가지고 사회주의자 등장 이후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형평 운동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보자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념갈등, 계급운동

좌우합작 단체, 신간회, 해소, 코민테른

3·1운동 이후 분출된 다양한 사회 활동 중 하나였던 형평 운동은 신분 문제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인권 해방을 위해 일어났다. 이러한 형평 운동은 당시의 문화통치 시기 아래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족말살정책이 실시되면서 이러한 활동은 퇴조해갔다. 이러한 시대상황과 형평 운동에 대해 학습지 탐구활동으로 보완하면 학생들이 신분 문제와 형평 운동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

V. 맺음말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노비제 및 세습신분제가 폐지되고 평등한 사회가 표방되었다. 이때 제도적면에서는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으나 사람들의 의식까지 하루 아침에 변할 수는 없었다.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천민 중에서도 백정이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 결국 백정은 신분 차별에서 해방되기 위해 1923년 형평사(衡平社)를 조직하고 형평 운동을 일으켰다.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 신분제 폐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통해 국민국가의 수립, 평등한 사회 및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분제 폐지와 그 이후의 사회적, 제도적 차별에 대해 교과서는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한국사』 6종 교과서는 모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사회적, 관념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엔, 지학사 교과서에서만 신분차별 의식까지 바뀐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뿐이다. 미래엔 교과서는 보조 자료 속에서 1905년, 1910년 당시에도 종살이 하던 천민 층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민권운동·민권의식의 성장에서 신분차별 의식이 극복, 완화되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제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신분차별적인 관념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여전히 존재했다고 서술해야 한다. 완화, 기틀의 마련, 극복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계속해서 신분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서술해야 한다.

둘째, 일부 교과서가 제도적 측면에서도 남아 있는 신분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호구조사규칙으로 호적상에서 신분은 사라졌지만 도한(屠漢), 붉은 점 표시 등으로 신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교과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미래엔, 법문사, 삼화, 천재교육 4종의 교과서는 호적에서 신분대신 직업을 쓰게 했지만 직업에 백정이라고 쓴다던지 붉은 점을 찍는다던지 도한(屠漢)이라고 쓰는 등 여전히 제도적 차별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 지학사 교과서는 백정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았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히려 차별이 심해졌다 등 백정 차별 문제만을 서술하고 있다. 여전히 남아 있는 편견과 차별문제만 언급할 뿐 제도상에 남아 있는 신분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근대적 호적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호적에 도한(屠漢), 붉은 점 등을 통해 신분을 표시하는 등 여전히 제도적인 차원에서 차별이 있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셋째, 백정 차별의 원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법문사, 비상, 천재교육 3종 교과서만이 도살 및 고기 파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미래엔, 삼화, 지학사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백정의 직업이 왜 차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일반민이 농사를 짓는 것과는 달리 백정은 고기 파는 일, 도축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이 직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집단 차별 의식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차별받았다. 이것이 형평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고 서술해야 한다.

넷째, 형평 운동의 활동과 내부 갈등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형평 운동은 일본 수평사와의 연대 속에서 발전하고 영향을 받았으나 천재교육 교과서를 제외한 5종의 교과서가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형평 운동 과정에서는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좌우 이념 갈등이 있었다. 법문사와 지학사 2종 교과서만이 내부의 이념적 갈등으로 활동의 통일성이 상실되었고, 내부에서 급진파와 온건파의 대립으로 이념갈등

이 있었다고 서술한다. 나머지 미래엔, 비상, 삼화, 천재교육 교과서는 이에 대한 서술이 없다. 당시 형평사는 젊은 사회주의자들의 급진노선과 노장층의 온건노선으로 나누어져 내부적 갈등이 있었다. 이들의 이념갈등에 대해 잘 이야기 해주면 그 당시의 사회운동이나 항일운동의 실상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내부의 갈등 문제를 써주지 않아 문제이다. 형평 운동은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으로 인해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이 갈등을 계속했다. 이에 형평 운동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성향을 띠는 젊은층 중심의 급진파와 노장층인 온건파로 나누어져 이념 갈등이 지속되었다. 결국 이러한 이념갈등은 좌우합작 단체 신간회의 해소나 형평사 해소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형평 운동의 퇴조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법문사,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 3종만이 일제의 탄압 강화로 형평 운동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서술한다. 나머지 미래엔, 비상, 삼화 교과서는 형평 운동의 퇴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운동 단체이든지 창립과 해소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특히 형평 운동은 이러한 퇴조의 과정 속에서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제가 일으킨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을 통해 형평 운동은 퇴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편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 되면서 식민지 조선에는 민족 말살 정책이 실시되었다. 인적·물적 자원 모든 것을 통제하다보니 사상·운동 단체들도 탄압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강압적인 탄압은 일본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이라는 국제정세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형평 운동의 퇴조는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식민지 통치 방식의 변화, 이로 인한 운동단체의 탄압과 관련이 있었다고 서술해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된 서술로 앞의 수업지도안과 같이 수

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근대 이후 한국사회가 신분적 평등을 표방했지만 사회의식과 제도적 면에서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분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난 백정의 사회적 차별 반대운동인 형평 운동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다시 신분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민주적,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신분 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있는 차별적 관념이 없어져야 한다. 차별 문제에 대해 우리교육은 민감하게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일제 식민 지시기 형평 운동은 이에 대한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자료>

-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1.
-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1.
-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1.
-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1.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법문사, 2011.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1.
- 三宅明正ほか18名, 『日本史A現代からの歴史』, 東京書籍, 平成25年.
- 君島和彦加藤公明ほか14名, 『高校日本史A』, 実教出版, 平成25.
- 鳥海靖ほか3名, 『現代からの日本史A』, 山川出版社, 平成25年.
- 外園豊基ほか6名, 『高等學校日本史A』, 第一学習社, 平成25年.

<저서>

- 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 2(개신교 입국에서 을미사변까지), 인물과 사상사, 2007.
- _____, 『한국근대사산책』 6(사진신부에서 민족개조론까지), 인물과 사상사, 2008.
- 고숙화,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2(형평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8.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4(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000.

_____ , 『한국사』 49(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1.

김육훈,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02.

김중섭, 『진주문화를 찾아서』 3(형평운동), 지식산업사, 2001.

_____, 『한국사회연구』 3(형평 운동 연구), 민영사, 1994.

김태웅,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6, 가람기획, 2013.

박찬승 편,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4.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2.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12.

<논문>

고숙화, 「日帝下 衡平社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_____, 「형평운동」 『한국사』 49(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1.

김재영, 「일제 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중섭, 「한국 형평사와 일본 수평사의 인권 증진 협력 활동 연구」 『사회와 역사』 84, 한국사회사학회, 2009.

김필동, 「중간신분층의 부상」 『한국사』 44(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000.

박세경, 「1920년대 朝鮮과 日本의 身分解放運動 -衡平社와 水平社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3, 한국일본근대학회, 2009.

박찬승, 「한국전쟁과 마을-기존 연구의 정리와 향후 연구의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 신종한, 「근대 신분제도의 변동과 일상생활의 재편-형평운동과 백정들의 일상-」 『동양학』 4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0.
- 이나영, 「衡平社 運動의 歷史的 評價」,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전광하, 「일본의 부락차별현상과 극복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 조성운, 「상민·천민 층의 성장」 『한국사』 44(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000.
- 지승중,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한국사』 44(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000.
- _____, 「朝鮮前期의 庶孳身分」 『사회와역사』 27, 한국사회사학회, 1991.
- 진덕규, 「衡平社運動의 自由主義的 改革思想에 대한 認識」 『한국정치학회보』 10, 한국정치학회, 1976.
- 최혜실, 「개화기 신분제 붕괴와 남녀평등, 자유연애 결혼의 관련 양상」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 허선아, 「조선시대 역관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사회적 위상」,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ABSTRACT

Status issue in colonial times and textbook description - focusing on Hyeongpyeong movement -

Hong sungjin

Dept. of the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Status system which has been inherited until now since Gabo Reform in 1894 has been abolish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bolition issue of heredity status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procedures which have transitioned from pre-modern to modern times. It is because dismantling of feudal status system is fundamental in advancing toward to more equal society, modern nation-state, national integration and democratic society. However, socio-ideological status discrimination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bolition of status system. The fact that the discrimination has continued despite the official status system abolition shows the values to be sufficiently attended from the history education perspectives. Additionally, the Hyeongpyeong movement of butchers' social anti-discrimination

movement should be studied which occurred in the procedures when these status system issues have been solved.

Status issue which has continued after the official abolition of status system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extbook discrimination about the Joseon Equality Movement which was formed in 1923 are arranged in this thesis. Regarding textbooks, 6 volumes of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are targeted which were based on revised education courses in 2010, history department. Through these works, the survival issue of modern status system and consequent Hyeongpyeong movement which occurred based on these issues were studied to teach the students.